

*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

*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,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.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.

P.I.R.A.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독서편 정오표 (문제편)		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
P.I.R.A.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독서편 정오표 (해설편)				
위치	수정 전		수정 후	
73페이지 35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(2쇄부터 반영)	명시적 근거	1문단 3번~5번 문장, 3문단 1번~3번 문장, <보기>	명시적 근거	1문단 3번~5번 문장, 3문단~4문단 전체, <보기>
	실전에서의 판단 과정	㉠은 귀납 논증이지.	실전에서의 판단 과정	포퍼는 연역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했지.
	해설	㉠은 '귀납 논증'의 사례입니다. 그리고 <보기>를 분석하면서 미리 생각했듯이, (가)~(나)의 논증은 '귀납 논증'이고 (ㄱ)~(ㄷ)의 논증은 '연역 논증'이었죠? 그렇다면 ㉠은 (가)~(나)의 논증을 통해 결론을 증명하겠네요.	해설	'포퍼'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. '포퍼'는 '연역 논증'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. 또한 선지에서는 ㉠ 자체가 아니라 ㉠의 '모든 까마귀가 검다.'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. '포퍼'에 따르면, '모든 까마귀가 검다.'는 (ㄱ)~(ㄷ)과 같은 '연역 논증'을 통해 과학적 지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?

P.I.R.A.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문학편 정오표 (문제편)		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
P.I.R.A.M 국어 옛기출 선별집 문학편 정오표 (해설편)		
위치	수정 전	수정 후
285페이지 164번 문제 5번 선지 '해설' (2쇄부터 반영)	'먼동'이 뜬다는 것은 새벽에서 밤으로 넘어가는~	'먼동'이 뜬다는 것은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~